



미 증시,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반도체주 강세

미국 증시 리뷰

20 일(월) 미국 증시는 연준 위원들 발언 영향은 제한된 가운데, 엔비디아(2.49%)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주 중심으로 소폭 상승, 나스닥 신고가 경신(다우 -0.49%, S&P500 +0.09%, 나스닥 +0.65%) 업종별로 IT(+1.3%), 통신(+0.3%), 산업재(+0.2%) 강세, 금융(-1.2%), 경기소비재(-0.7%), 필수소비재(-0.7%)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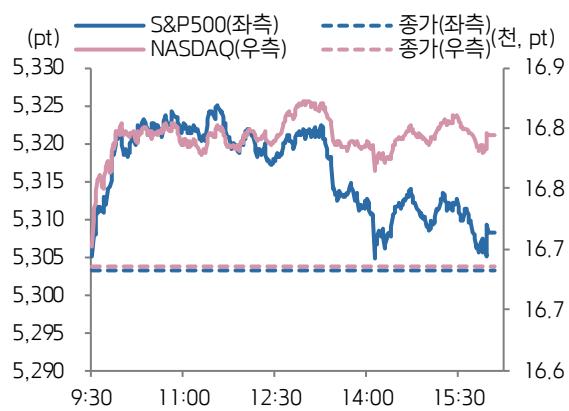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계속해서 둔화할 것이고 경기 둔화 역시 천천히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4 분기에 금리 1 회 인하 전망. 매파성향의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해서 확신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1 분기 인플레이션 지표를 고려할 때 2024년 세 차례 금리 인하는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연준의 정책 금리가 제약적 영역에 있으며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에서 최근 둔화세가 장기간 지속될지 여부를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4 월에 더 나은 CPI 지표가 나온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1 분기 인플레이션 수치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이는 제약적인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며 “연준이 금리를 유지하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펴 볼 좋은 위치에 있다”고 언급.

엔비디아 컨센서스 매출 245.7 억달러(QOQ 8.3%, YOY 11%), EPS 5.59 달러로 형성. 지난 세개 분기 연속 실적 및 가이던스 컨센서스 상회했으며 현재 PER 은 34 로 S&P500 가중평균 PER 20.8 상회. 팩트셋에 따르면 2023년까지 3년간 엔비디아 이익의 연간 복합 성장률은 84.9%로, S&P500 기업 평균 11%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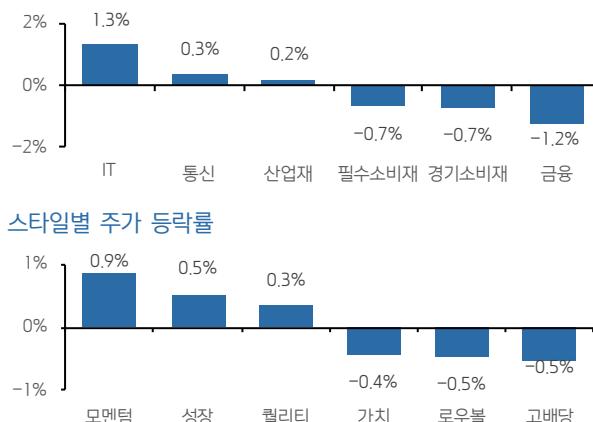
퀄컴(2.01%) 마이크로소프트 신제품 공개에 강세. 마이크로소프트는 개발자 컨퍼런스 전일인 현지시간 20일 AI 기능을 강화한 태블릿과 랩톱 신제품을 공개. ARM 이 설계한 구조를 기반으로 제작된 퀄컴의 신형 스냅드래곤 프로세서를 탑재, 이 칩은 AI 관련 기능을 가속화하도록 설계된 신경처리장치를 포함. 지난주 오픈 AI 와 구글은 음성을 통해 실시간 응답과 중도 간섭도 가능한 AI 모델 공개 및 검색 엔진에 여러 가지 생성 AI 기능 출시 발표.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742.14	+0.64%	USD/KRW	1,355.87	+0.05%
코스피 200	373.68	+0.84%	달러 지수	104.61	+0.16%
코스닥	847.08	-0.93%	EUR/USD	1.09	+0.02%
코스닥 150	1,348.68	-1.79%	USD/CNH	7.25	-0.02%
S&P500	5,308.13	+0.09%	USD/JPY	156.22	-0.03%
NASDAQ	16,794.88	+0.65%	채권시장		
다우	39,806.77	-0.49%	국고채 3년	3.407	+3.2bp
VIX	12.15	+1.33%	국고채 10년	3.497	+4.2bp
러셀 2000	2,102.50	+0.32%	미국 국채 2년	4.848	+2.3bp
필라. 반도체	5,090.35	+2.15%	미국 국채 10년	4.443	+2.3bp
다우 운송	15,428.55	-0.47%	미국 국채 30년	4.585	+2.6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5,074.34	+0.2%	WTI	79.8	-0.32%
MSCI 전세계 지수	796.05	+0.14%	브렌트유	83.74	-0.29%
MSCI DM 지수	3,477.07	+0.13%	금	2461.7	+0.87%
MSCI EM 지수	1,099.79	+0.11%	은	32.21	+3.73%
MSCI 한국 ETF	65.24	-0.34%	구리	508.75	+0.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34%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37%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19%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58.8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금리 상승 및 달러 강세가 증시 상단을 제약할지 여부
2. 엔비디아 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3. 지난 금요일 이후 냉각된 바이오 업종의 투자심리 회복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다우에 이어 나스닥이 엔비디아(+2.9%) 등 AI,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 신고가를 경신하기는 했지만, 지난주 이후 전반적인 미국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 이는 엔비디아 실적 대기심리 이외에도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금리와 달러의 레벨 다운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

블룸버그의 연준 발언 지수(Fed Speak Index, "+"값은 매파적, "-"값은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봐도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지난 4 월 중 4.0pt 를 기록하며 1 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던 연준 발언 지수는 5 월 FOMC 및 4 월 고용을 거치면서 3.4pt 까지 하락하기도 했음. 하지만 4 월 CPI 이후 재차 오름세로 전환하며 현재 4.89pt 대까지 올라왔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시장과 달리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경로를 고려한 금리 인하에 여전히 보수적인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려있는 것으로 보임. 이를 고려 시 실제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능할 수 있는 6 월 FOMC 전까지 매크로 불확실성이라는 족쇄가 증시에 채워져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는 것이 적절.

전일 국내 증시는 HLB 발 여진에도 지난 금요일 급락 이후 반도체 중심의 기술적 매수세 유입 속 전력 수요 호조 기대 지속, 중국 경기 모멘텀 호전 등에 따른 시클리컬 업종 강세에 힘입어 혼조세 마감(코스피 +0.6%, 코스닥 -0.9%).

금일에는 엔비디아(+2.5%), 마이크로(+3.0%) 등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에 힘입어 국내 증시도 반도체 주를 중심으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다만, 연준 위원의 매파 발언에 따른 환율 및 금리 상승, 엔비디아 실적 관망심리 등이 혼재되면서 지수 상단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 또 지난 금요일 이후 연속 하한가를 기록 중인 HLB 발 바이오 업종의 수급 불안 진정 여부에도 시장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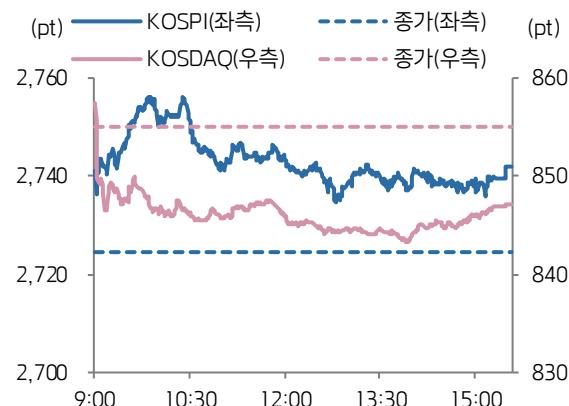
한편, 지난 미국의 4 월 CPI 안도감 이후 다른 나라 증시와 함께 신고가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됐던 코스피는 전고점(2,757pt)에서 저항을 수시로 받고 있는 모습.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완성해가고 있는 등 기술적으로 상단이 열린 자리가 조성이 되었으나, 2,800pt 대를 눈 앞에 둔 심리적인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는 실정.

펀더멘털 상으로는 상단 저항을 받는 근본적 배경은 이익 전망 상향 조정세가 정체된 데서 기인. 5 월 20 일 기준 코스피의 '24 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약 265 조원으로 4 월 초 254 조원에서 약 10 조원 상향 조정. 하지만 5 월 이후로 265 조원대 내외에서 추가 상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반도체 등 대장주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결국 현 시점에서 지수의 추가 레벨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ex: 6 월 FOMC) 등 기준 매크로 변수를 소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익 전망 상향 여부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재료가 될 것.

통상적으로 코스피 이익 전망 변화는 미국, 중국의 경기 전망과 같이 주요 교역국들의 수입 수요 변화, 정부의 정책, 정치적인 환경 등에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편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특정 대형 업체의 실적에 따른 파급 효과가 이익 전망에 변화를 가하는 때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이런 측면에서 최근 주요 외사들의 잇따른 목표주가 상향(목표주가 1,085 달러~1,200 달러 레벨로 상향)이 일어나고 있으며,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는 엔비디아 실적(23 일 한국시간 새벽)이 반도체 중심의 코스피 이익 전망에 변화를 가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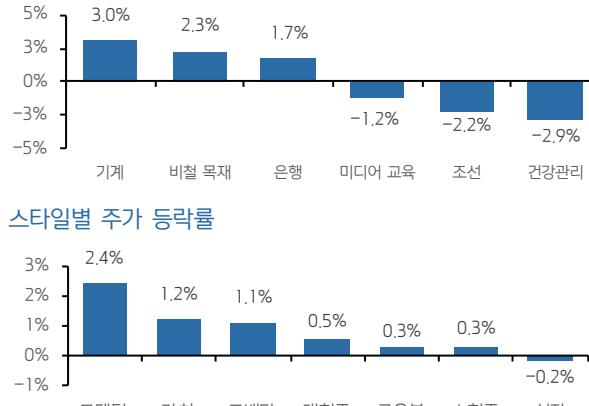
동시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이 이를 해석하고 반영하는 데에는 차주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이번주 중에 주가 변화는 향후 증시의 방향성을 예고해주는 성격이 약할 것이라는 전제로 접근할 필요. 이 구간에서는 최근처럼 구리 강세, 중국 소비, 전력 수요 등과 같은 재료들로 업종간 순환매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총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